

# 생약연합회 지황 1만평 계약재배



한부생약연합회는 다수 회원이 국내에서 시험재배를 마친 결과 우리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계약재배를 도입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본 협회 회원 4천3백99명 생산된 지황 3,5백t 이상을 수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경 1호 재래종보다 수량성 높아 재배면적 연차적으로 늘려나갈터

본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돌아보는 지난 1년은 분주하고 고달팠던 만큼 또 결실도 소담스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규격화고시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농민이 자체 생산한 것도 종전대로 자유롭게 판매토록 허용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규격화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힘들고 지루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규격화고시(안)을 발표한 이래 우리는 재배농민들의 생산위축이 우려되는 국산한약재 절단 포장 규격화를 반대해 왔고, 따라서 국내산 17종은 규격화고시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시행하더라도 농민이 생산할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1일 시행할 방침이었던 규격화고시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함과 동시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가공·포장한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의 성과는 우리모두 하나된 힘의 소산이고, 특히 농림수산부의 생산자 보호 의지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제1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대외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2회 전시회 행사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만들어 우리생약살리기가 구호만이 아닌 살아있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총회때만 해도 7천83명이던 중앙회원이 현재 1만3천여명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식구가 늘었으며 우리 협회가 나서서 해내야 할 책임의 몫도 그만큼 많아진 셈입니다. 그동안 4면만을 발행해 오던 생약보를 8면으로 증면함과 동시에 재배기술과 생약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생약보의 역할은 빠르게 변모해 나가는 정보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속에서 보다 건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약연구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3년간 백출·지황 등 생약재의 현장에 기술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있는 큰 수확입니다. 계약재배한 황기·당귀·시호를 비롯하여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독활도 협회가 나서서 일부 수매하기도 했습니다만, 미약하기만한 우리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을 다 품어 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UR이니 WTO니 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도 우리 협회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시호·황기·당귀 등 기존 재배품은 지속적으로 하한가 계약재배를 계속하고, 지황도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질 좋은 국산한약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은 물론 생산능력의 관로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순경 일괄 수매할 계획이며, 지황 국내자급을 목표로 계약재배 면적은 연차적으로 꾸준히 늘려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최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황을 약근용과 종근용으로 구분하여 재배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제는 내외의 협의를 거쳐, 생약연합회(생약연합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생약연합회는 생약연합회(생약연합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생약연합회는 생약연합회(생약연합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 재임 1년을 돌아보며

본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돌아보는 지난 1년은 분주하고 고달팠던 만큼 또 결실도 소담스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규격화고시에 대한 우리 협회의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농민이 자체 생산한 것도 종전대로 자유롭게 판매토록 허용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1년은 규격화와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힘들고 지루한 줄다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가 규격화고시(안)을 발표한 이래 우리는 재배농민들의 생산위축이 우려되는 국산한약재 절단 포장 규격화를 반대해 왔고, 따라서 국내산 17종은 규격화고시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시행하더라도 농민이 생산할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당초 4월 1일 시행할 방침이었던 규격화고시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함과 동시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가공·포장한 것도 규격품으로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의 성과는 우리모두 하나된 힘의 소산이고, 특히 농림수산부의 생산자 보호 의지가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제1회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대외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2회 전시회 행사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만들어 우리생약살리기가 구호만이 아닌 살아있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총회때만 해도 7천83명이던 중앙회원이 현재 1만3천여명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식구가 늘었으며 우리 협회가 나서서 해내야 할 책임의 몫도 그만큼 많아진 셈입니다. 그동안 4면만을 발행해 오던 생약보를 8면으로 증면함과 동시에 재배기술과 생약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생약보의 역할은 빠르게 변모해 나가는 정보화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속에서 보다 건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본 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약연구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3년간 백출·지황 등 생약재의 현장에 기술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도 의미있는 큰 수확입니다. 계약재배한 황기·당귀·시호를 비롯하여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한 독활도 협회가 나서서 일부 수매하기도 했습니다만, 미약하기만한 우리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국내 생약농업의 현실을 다 품어 안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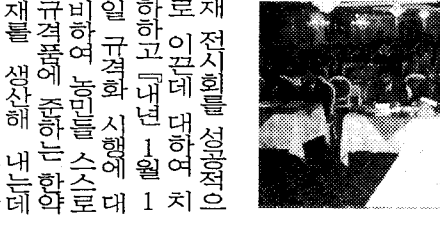
UR이니 WTO니 해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올해도 우리 협회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시호·황기·당귀 등 기존 재배품은 지속적으로 하한가 계약재배를 계속하고, 지황도 다수확 품종을 도입하여 올해부터 계약재배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산한약재상설매장을 설치하여 질 좋은 국산한약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은 물론 생산능력의 관로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순경 일괄 수매할 계획이며, 지황 국내자급을 목표로 계약재배 면적은 연차적으로 꾸준히 늘려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최근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황을 약근용과 종근용으로 구분하여 재배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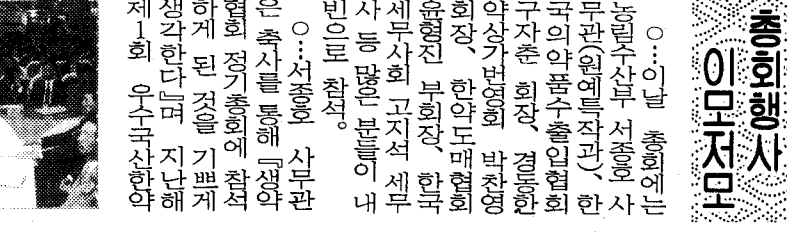
이제는 내외의 협의를 거쳐, 생약연합회(생약연합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생약연합회는 생약연합회(생약연합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제26차 정기총회... 각 지부장, 이사, 사무소장, 공판장 등 약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협회 사무국이 94년



재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이끈데 대하여 축하하고 '내년 1월 1일 규격화 시행에 대비하여 농민들 스스로 규격품에 준하는 한약재를 생산해 내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



○...내년 1월 1일 규격화시행발표와 관련하여 생약연합회 공판장 박철규 사무소장이 규격품에 준하는 한약재 생산해 내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 ○...내년 1월 1일 규격화시행발표와 관련하여 생약연합회 공판장 박철규 사무소장이 규격품에 준하는 한약재 생산해 내는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